

다산포럼

김정남



얼마 전 광주고등법원의 재심에서 세칭 오송회(五松會) 사건 관련자 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겪은 교통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린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실로 26년 만의 일이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나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권의 시집이었다. 1948년에 월북한 시인, 오송환의 네 번째 시집 ‘병든 서울’이 그것이었다. 대공 경찰은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이를 계기로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를 조작해 내기로 작정했다.

이들이 당시에 이렇게 작심한 이상, 착하기만 한 선생님들은 도마 위에 놓인 고기나 다름없었다. 이광웅이 이 사건의 주범이 된 것은 그 시집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사건이 그 무렵 아랍화, 한울회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도 조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제2인자 격인 박정석의 증언

에 의하면, 군산제일고 교사들이 이들은 19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본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부터 육신과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체험을 겪는다.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면 합수목, 그때

에 의하면, 군산제일고 교사들이 이들은 19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본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부터 육신과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체험을 겪는다.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면 합수목, 그때

에 의하면, 군산제일고 교사들이 이들은 19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본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부터 육신과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체험을 겪는다.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면 합수목, 그때

에 의하면, 군산제일고 교사들이 이들은 19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본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부터 육신과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체험을 겪는다.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면 합수목, 그때

‘오송회’를 아시나요

마다 고문의 강도는 높아졌다. 영향받은 사람, 관계있는 사람을 데리는 고문에 문규현, 조성용의 이름이 신용처럼 튀어나왔고, 조성용은 그때부터 영문도 모른 채 황소처럼 목이 매여 끌려나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합류하게 된다.

고문은 이들로 하여금 우선은 살고 봐야 하겠다는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들이 불러주는 각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오송회 사건에 연루되었던 교사들은 난세를 사는 지식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놓고 고민했고, 민주적

인 교사, 깨어있는 교사이기를 갈망했다. 이들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길이라고 믿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슬그머니 4·19가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비쳤다.

이들 국민의 저항의식을 두려워 한 반민주적, 반민중적 독재권력의 성격 때문이라고 규정할 이들은 4·19날에 위령제라도 지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막걸리 10병과 오징어 안주를 들고 학교 뒷산에 올라갔다. 소나무 아래서 4·19와

다. 고범에 가면 나머지 3명도 석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광주고법의 2심은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마저 법정구속하면서 전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이 온통 아비규환이 된 것은 물론이었다. 이때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 1, 2심 재판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어둠에 보이면서도 손수했던 이광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던 박정석의 모습이 선하다.

학교에서 이광웅의 별명이 ‘들잠’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복역 후 그는 서울에도 곧잘 나타나 문인들과 어울렸다고 하지만, 그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채 1992년 타계했다.

그는 이른 봄철, 강가에 피어있는 하얗은 들꽃을 보고도 감격하는 시인이었다. 급강 하구둑에 가면 들꽃이 하나도 우뚝 선 그의 시비(詩碑)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거기도 가보지 못했다.

지금도 그의 시 ‘목숨을 걸고’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다. “이 땅에서 /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한다.” 과연 그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전폭적 지원 절실하다

우리 정부도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일부 업체만의 일이 아닌 ‘시장의 위기’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이 이미 자국 자동차 살리기에 나선 마당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자동차 업계의 위기는 심각하다.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경우 이달 들어 본격적인 감산에 나서는 등 비상이다. 당달이 250여 지역 협력업체가 출도산 위기에 몰려있다. 부품업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나마 낫다. 쌍용차와 GM대우는 최근 모든 공장이 당분간 조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르노삼성도 24일부터 연초까지 조업을 멈춘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그

어는 산업보다 크다. 특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은 광주지역 제조업 고용의 25.9%, 총 생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아차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두 가지다.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자동차 판매증진을 위한 할부금융시장 활성화가 그것이다. 정부는 앞서 승용차에 붙은 개별소비세 30%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다급한 목소리다. WTO 규정 때문에 직접 지원은 쉽지 않다고 해도, 판매와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계지원 등 동원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필요가 있다.

노사간의 협상을 통한 구조조정도 선행돼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확대’ 단속인력 보강해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22일부턴 전면 확대됐다.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되고 100㎡ 이상 업소에선 쌀과 김치류도 표시해야 한다. 이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본격적인 ‘원산지 표시 시대’가 도래했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쇠고기와 쌀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는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광주·전남의 대형 음식점의 경우 허위표시 70건, 미표시 31건으로 위반사례가 100여건에 달했다. 제도 확대 시행 이전 6개월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위반 식점의 99%는 쇠고기다. 값싼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보다 질 좋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쇠고기로 바뀌어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순방량이 처벌이 문제다. 예컨대 정육점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치기해 팔다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자의 벌금은 최고형량의 2%인 평균 200만원이 고작이다. 이례선 ‘배짱영업’을 근절하기 힘들다.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단속대상은 광주·전남에만 4만5천여 곳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원은 170명에 불과하다. 시·군·구 공무원이 보조한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떨어지는데다 민원을 의식해 대충대충 하는 때가 많아 혼신만 준다.

속여 팔다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 인턴도 모집해서 고강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불황으로 허덕이는 요식업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우리 농축산물 보호와 국민 먹거리 불안 해소가 더 급하고 소중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우승구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에 광주교육가족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3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교육가족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3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문화 분야나 업무청렴 분야 모두 지방교육청은 물론 전체 기관의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업무 분야는 전국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업체관계자를 포함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이번 문제의 발단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 부분들은 모두 전국 평균치에 도달했으나,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순회회 등 체험활동 분야에서 턱없이 낮은 평가된 점이 종합청렴도가 미흡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된 것이다.

청렴 으뜸 광주교육, 반성과 각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말, 현 민선 4대 교육감 취임 즉시 광주교육의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분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전개해 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더불어 청렴 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모든 학교와 기관에 교육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청렴 사례집을 발간·배부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다각적인 부패추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측정 결과는 광주 교육가족들의 노력을 헛되이 만든 것은 물론, 그간의 청렴시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일각의 비판마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발표결과를 살펴보면 사뭇 다른 상황이 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자칫 공염불이 될 이번 상황을 우리는 광주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한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광주교육의 현재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현 제도의 미비나 잘못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청렴도 미흡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교육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실력광주의 명성을 회복, 미래지향적 광주교육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오늘의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청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디 광주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을 기대한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휴대전화 없다고 사이트 ‘가입 불가’ 말도 안돼

전업주부다. 아이들 휴대전화까지 집안에 전화가 무려 6대나 된다. 통신비가 부담돼 자주 쓰지 않는 필자의 휴대폰은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각종 사이트나 협회 등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것이다. 휴대폰 가입란을 비워두면 다른 항목을 넘어가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떤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은행·보험사 심지어 관공서·복지단체까지

휴대폰 번호 입력을 강요하니 불편함이 너무 심하다. 가족 휴대폰 번호도 입력할 수 없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사용 인구가 국민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읽었다. 하지만 휴대폰이 일반화 됐다 해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인터넷 업체들의 이같은 편의주의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이같은 폐해를 없애야 한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기고

김성



십여년 전 우리 다도해와 비슷한 유럽의 에게해에서 크루즈를 잠깐 했었다. 크루즈선이 섬에 도착할 때마다 각기 다른 그리스 신화가 소개되고 독특한 음식, 술, 그리고 풍습들이 관광객을 맞았다. 어떤 식물을 현관문 위에 걸어 두면 귀신을 쫓는다는 유래도 소개해주었다.

크루즈선 안에서는 그리스의 전통 춤이 공연됐다. 영화 ‘회합인 조르바’에서 배우 안소니 퀴이 바닷가에서 추던 춤이다. 관람객들은 남자 댄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고향답게 많은 설화와 ‘겨리’가 남아있으나 다양한 이야기로 빛을 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이 “무등산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의미있는 일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한 해 100명씩 스토리텔링 작가들을 길러내고 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지역에 널려있는 문화관광자원들을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과 같은 여러 가지 예술적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기법이

스토리텔링 활성화로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받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서구 고대문화와의 만남이었지만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는데다 회합인 조르바 영화도 본 적이 있어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우리 역시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고, 각 지역마다 많은 설화와 자랑할만한 음식도 있다. 그러나 섬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과 술은 물론 이야기나 작품도 없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에는 총 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가 많다. 하지만 그것이 영국의 벨슨제독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나,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등으로 소개되지 않아 외국인에게까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수 엑스포나 다도해 크루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주나 전남은 한국인의

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히트 친 애니메이션 ‘슈렉’도 당초 동화책 나온 원작을 이리저리 비틀고,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이제는 초보단계이지만 이들이 우리 지역의 설화나 문화자원을 소재로, 또는 기발한 창작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세계적 작품을 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필자가 서양 고대문화를 부담없이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 문화를 생소하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문화산업 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차체에 기발한 생각으로 가득찬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교육을 퍼져 주변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활성화연구소장〉

대형마트, 소형 유통업체와 공생위해 영업시간 제한해야

아내가 동네 상가에서 미장원을 하다가 영업을 안해 2년만에 접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다시 야채·청과류 전문 슈퍼마켓을 개업했지만 그마저도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스럽다. 영업을 잘 못하는 것은 주인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같은 대형 마트들의 영업행태 탓도 크다.

서민이 살아야 증산층도 살고, 증산층이 잘 움직여야 경제가 제대로 돈다고 했다. 동네 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동네 미장원, 야채 가게, 피자·치킨집, 세탁소, 사진관 등 동네 소형 업체들이 모세혈관처럼 활기차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담배가게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대형마트들 때문에 동네 수습계 소형 가

게들이 망해가고 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독점은 막아야 동네 소형 가게·재래시장이 산다. 공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건의한다.

유럽에서는 동네 가게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그렇게 하면 1년에 1조원이 넘는 자금 규모가 슈퍼마켓, 동네 상점, 재래시장으로 흘러간다는 조사 결과를 본적이 있다.

대형마트와 동네 가게·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無等鼓

한국의 전통 식품 가운데 국제 공인을 획득한 유일한 품목이 김치다. 하지만 김치는 한때 그 이름이 영원히 지구 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기무치에 위세가 높려 있었던 김치는 지난 2001년 7월 세계대표 식품의 자리를 놓고 일본의 기무치와 맞대결을 펼쳤다. 평가기관은 식품분야의 국제표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심사 끝에 이 단체는 김치의 손을 들어줬고, 국제식품 규격으로 인정받으면서 ‘kimchi(김치)’는 세계에 통용되는 유일한 단어가 됐다.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김치는 소위 ‘배움준표 김치’다. 한류스타 배움준의 소속사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점 고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시 배움준 김치’가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이 김치는 우리 고장 순천농협이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김치다.

올해부터 연간 30만달러 규모의 배움준 김치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예찬김치도 광주에서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고의 전라도 김치의 뛰어난 맛이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수출이 시작된 김치는 현재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김치의 물량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년전부터는 수입이 더

많은 무역역조 상품이 됐다. 특히 수입김치는 이제 100%가 중국산이다. 안타깝지만 배움준 등 우리 체소로 직접 담은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김치는 중국산이라 보면 될 정도다. 경쟁 끝에 기무치를 물리쳤는데 중국 김치에 질려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농식품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김치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김치협회도 설립키로 했다. 이미 김치의 맛과 산업의 본고장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쳐 나갈 때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김치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